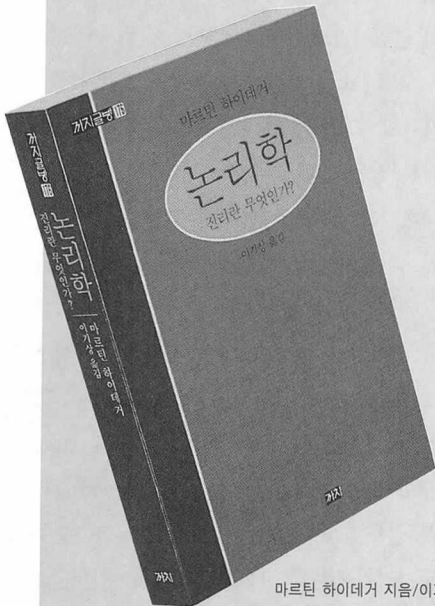


**‘철학하는 논리학’의 본질 규명
인간과 세계의 존재 연관 밝혀**

《논리학》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이기상 옮김
까지/A5신/438면/19,000원

일반적으로 논리학은 합리적인 사고와 언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함과 말함의 형식적 체계를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논리학은 전통적으로 개념론·판단론·추리론 등으로 구성되며, 이런 논리학의 주요 목적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진술과 추리를 거트된 진술과 추리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이해는 강단 논리학이 주도해왔던 것으로, 이런 강단 논리학의 전통은 이론적 인식의 진리 및 발원된 진술의 진리를 진리 자체의 근본형식으로 간주하는 뿌리깊은 철학적 오해에서 발원하고 있다. 강단 논리학에 따르자면, 진리는 사유와 존재(사태)의 일치이고, 이런 진리의 본질장소는 명제며, 또 이런 규정은 논리학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발원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가지 자명한 견해가 모두 선입견 혹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사유함과 말함의 진리를 추구하는 강단 논리학이 진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발원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런 경우에도 전통 논리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학문의 예

비학 혹은 기초학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전통 논리학의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를 숙고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책이 출간됐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논리학》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강단 논리학’에 대해서 ‘철학하는 논리학’을 대조시키면서, 하이데거는 먼저 논리학이라는 낱말이 지닌 시원적인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논리학의 본래적인 주제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는 탁월하고도 보편적인 근본양식으로서의 말함(로고스)이다. 여기서 말함이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합리적인 언어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 사이의 참다운 존재연관을 “보이게 하는” 즉 열어 밝혀 드러내주는 행위다. 이런 의미에 따를 경우, 논리학의 기초적인 주제는 이론적 인식의 진리 및 명제적 진리와 연관되기 이전에, 존재자를 참답게 탈은폐하는 존재이해 및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주장하려는 핵심이다.

이 책은 논리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독특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그러나 ‘철학하는 논리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그가 할애하고 있는 논의의 분량은 짧은 반면, 오히려 ‘진리와 시간’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논리학》이라는 표제가 충족할 만한 것인지의 의문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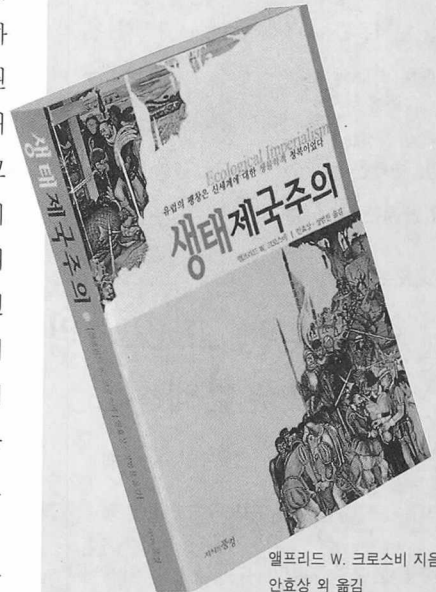
이 책은 본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1927) 및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1929)를 집필하기 위해 구상하던 예비적 과정에서 행해진 강의를 기록한 것이기에, 이 책의 의의는 오직 그런 연장선 위에서만 참답게 이해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문맥을 세심하고 깔끔하게 번역한 이기상 교수의 정성과 노고가 깊게 배인 이 책이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

신상희

건국대 철학과 감사. 저서 《하이데거의 진리물음과 전회》 《시간과 존재의 빛》 외.

**생태적 관점에서 조명한 제국주의사
인간이 배제된 역사 서술은 문제**

《생태제국주의》



앨프리드 W. 크로스비 지음/
안효상 외 옮김
지식의풍경/A5신/440면/14,000원

‘생태제국주의’라는 제목에 합당하게 이 책의 내용은 아주 특이하다. 오스틴의 텍사스 주립대학 미국학 교수인 앨프리드 W. 크로스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이북의 아메리카 대륙 등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현재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네오 유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의 관심은 이 지역들이 어찌하여 압도적으로 백인들이 우세한 곳으로 바뀌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이유로 크로스비는 이 지역의 기후와 풍토가 구대륙과 비슷해 구대륙의 동식물과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어찌하면 단순하게 보이는 그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2억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의 판게아가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갈라지면서 기후가 비슷한 지역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기도 하고, 노르웨이와 십자군이 궁극적으로 빈란트와 동방의 지속적인 정착에 실패한 이유를 질병에 의존해 설명하기도 한다. 천연두나 홍역과 같은 질병이 원주민들을 절멸시켰던 신대륙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정복자들이 오히려 질병에 쓰러졌기 때문에 영구적인 정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동북 대서양의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제도에 서 유럽의 동식물이 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한 유럽인들은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해 이후 '네오 유럽'이 될 지역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는 잡초와 동물과 질병이 이미 유럽의 사람들을 위한 터전을 닦아놓아 생태계를 유럽과 비슷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적 손쉽게 그곳에 영구히 정착할 수 있었다고 크로스비는 논한다.

그렇다면 유럽과 같은 기후권, 즉 온대권에 있지만 유럽이 지배하지 못했던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정주 식민지를 세우지 못한 이유로서 저자는 그곳에 이미 강력한 중앙정부와 탄력성 있는 제도가 존재했고 문화적 자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꼽는다. 그렇지만 생물계를 중시하는 그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밀도가 높던 이 지역에는 유럽과 같은 곡물, 가축, 미생물 등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제국주의자들은 기후는 비슷하지만 그들보다 덜 발전한 문화와 단순한 생태계를 갖고 있던 신대륙에서만 네오 유럽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때때로 《성서》나 옛 고전의 여러 구절들을 병리학의 해안으로 날카롭게 파악하기도 한다. 확실히 이 책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달리 하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아닌 생물이 무대의 전면에 선 인간 이주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다. 그러나 반면, 그렇게 인간적 주체를 배제시켜 생물이 주체가 된 식민지나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종류의 논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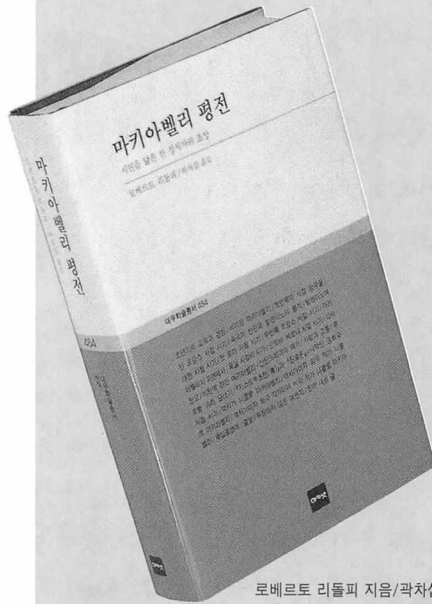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병균과 잡초에 의해 식민 혹은 유럽인들의 정주가 결정됐다는 논점은 제국주의와 연관된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 백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면제시켜주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저서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역서 《고양이 대학살》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외.

서평

시인적 삶에 초점 맞춘 평전 충실한 번역과 역주 돋보여 《마키아벨리 평전》



로베르토 리돌피 지음/곽차삼 옮김
아카넷/A5신/700면/30,000원

아니, 마키아벨리라면 '권모술수주의'를 뜻하는 마키아벨리즘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아닌가? 물론 마르크스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은 세속에서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부정했듯, 마키아벨리와 세속적 의미에서의 마키아벨리즘은 구별돼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마키아벨리를 '권모술수주의'는 커녕 '시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독특하기를 넘어서서 지나치다고 여길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니 "무릇 시가 있는 곳에 진정코 사악함은 없는 법"이라는, '시인=선인(善人)'이라는 항등식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했으나, 그는 차라리 선인 쪽에 끼일 인물이었다"는 전도된(?) 마키아벨리관을 견결하게 유지하는 책이 있다면 당혹스럽기조차 할 것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새로운 생각(언어, 세계관)을 개척하는 일이 시적(poetic) 행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을 또 시적 작업이라 이룰 수 있으랴. 시적 사유와 마키아벨리의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추적하다보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서문에서 스스로 밝혔던 바, "전혀 새로운 길

(new route)을 걷겠노라"던 진솔도 예상롭지 않게 다가온다. 그것은 언어를 창조하는 시적 사유를 《군주론》 속에 투영하겠노라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론의 천명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지은 로베르토 리돌피의 생각은 마키아벨리가 기껏 '시적' 인물이기를 넘어서서, 마땅히 '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기야 마키아벨리는 뛰어난 희곡작품들, 이를테면 《만드라골라》 《크리시아》와 같은 명편을 남긴 사람이기도 한데, 저자에게 그가 시인인 진정한 이유는 그의 품성과 행적 속에서 냉소적이지만 동시에 예민하고 열정적인 '시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역자해제). 모순된 감정의 동거(측은/오만, 울음/웃음, 찬양/비난)와 이 둘 사이의 급격한 전회는, 예술사기인 아놀드 하우스가 지적한 바 있었던 '마니에리즘'과의 유사점이 있을 법하고, 또 이 점은 과학적 사유와 예술적 기예의 동거를 지향했던 르네상스기 예술가들과(이를테면 미켈란젤로) 동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번역본 자체도 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리돌피의 원전은 1978년 현재 7판에 이를 정도로 여러 차례 중간(重刊)됐고, 그 와중에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로도 널리 번역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이 정치사상사, 또는 서양근대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리돌피의 평전은 중요한 텍스트로 알려졌으니, 이제야 우리에게 이 책이 번역된 것은 때늦은 감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 번역본의 가장 큰 미덕은 그 동안 영어본이나 일어본을 중역(重譯)해온 우리 사상사학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태리어 원본을 직역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역자는 원저자의 고증학적이고 문헌학적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둔 세밀한 주석을 낱낱이 번역했을 뿐 아니라, 틈틈이 번역자의 자세한 '역자주'를 첨부해 책의 심도를 더욱 깊게 만든다. 다만 역자주를 본문 속에 괄호로 처리해(활자 크기조차 동일하게) 글읽기의 맥을 끊는다는 점이 옥에 티다.

배병삼

성심외국어대 정보통신학부 교수. 저서 《삼국통일과 한국통일》(공저), 논문 <마키아벨리의 한국적 수용> 외.